

바르셀로나, 도시 정체성 보존 위한 도시계획 기준 마련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new-plan-to-protect-the-historical-urban-identity-of-vila-de-gracia_1038142

바르셀로나는 빌라 데 그라시아(Vila de Gràcia) 지역의 도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하였다. 좁은 골목과 광장,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즐비한 빌라 데 그라시아 지역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카사 비센스(Casa Vicens), 구엘 공원 등이 있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 이에 새로운 도시계획의 기준은 빌라 데 그라시아 지역과 인접한 라 살루트(La Salut), 발카르카(Vallcarca), 엘 캄프 드 앙 그라스티 그라시아 노바(Ei Camp d'en Grassot i Gràcia Nova) 지역의 일부를 포함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일치하는 작업,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축 건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보호주택은 2,000여 채에 이르며, 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1층의 경우에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보호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위해 차량 출입과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거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공간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거리와 공원·정원·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오래된 건축이 늘어난 바르셀로나 도시 풍경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홈페이지.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new-plan-to-protect-the-historical-urban-identity-of-vila-de-gracia_1038142 (검색일: 2021. 3. 8.)